



제31회 광주시 시민체육대회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9일부터 이틀간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 빛고을체육관, 보라매축구장, 동림다목적체육관 등 13개 경기장에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제31회 광주광역시민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9일부터 이틀간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 빛고을체육관, 보라매축구장, 동림다목적체육관 등 13개 경기장에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엘리트 선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종목의 요강을 변경해 종목 활성화를 꾀했다. 육상은 400m 릴레이와 800m 릴레이에, 배드민턴은 혼합복식에 엘리트 선수들과 동호인들이 함께 출전할 예정이어서 흥미를 더했다. 사진은 이용섭 광주시장이 주요내빈, 선수단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있는 모습. /광주시 제공

광주시, 한국수영진흥센터 조성 본격화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념유산 추진
 국제규격 경영풀·기념관 등 연면적 1만2000㎡ 규모
 29일까지 후보지 접수... 정량·정성평가 등 거쳐 선정

광주시가 지난 8일 한국수영진흥센터 부지선정 절차에 돌입하며 국제수영 허브(HUB)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한국수영진흥센터는 지난 7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치른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념 유산 사업의 하나로, 국제규격의 50m 경영풀, 국제스포츠대회 기념관,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춘 연면적 1만천㎡, 3층 규모로 설립된다.

수영진흥센터는 꿈나무 아카데미 운영, 전국 규모 수영선수권대회 개최, 맞춤형 시민 수영교육 등을 통해 학교·생활·엘리트 수영을 연계하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선순환하는 수영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광주시는 수영진흥센터를 조속히 설립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부지를 선정하고 2020년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2021년 착공을 거쳐 2023년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영진흥센터 조감도.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수영진흥센터 활성화와 수영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대해 자치구로부터 다양한 후보지를 신청받아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부지선정 절차는 자치구가 오는 29일까지 후보지를 제출하면, 광역 생활권, 접근성 등 체육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지 현장방문과 정성평가 등을 거쳐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후보지를 설립 부지로 선정하게 된다. 특히, 자치구간 과열 유치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서명운동, 유치결의 등 단체행동이나 현수막, 차량 등 기구시설물을 이용한 유치 홍보 행위 등에 대해 감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한국수영진흥센터가 건립되면 광주는 박태환 같은 세계적 스타를 길러내는 요람이 될 것이다"며 "공정하게 입지를 선정하고, 조속히 설립을 완료해 대한민국 수영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승현 기자 jsh9668@

신안 하의도서 '블루 투어' 구상

김영록 지사 DJ생가·한반도 평화의 숲 대상지 등 살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혁신성장 전략 가운데 하나인 '블루 투어' 큰 그림 구상을 위해 9일 신안 하의도 한반도 평화의 숲 대상지와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등을 살펴보았다. 신안 하의도는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어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평화의 섬으로 불린다. 1999년 종전들이 중심이 돼 복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와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후광리 생가 부근 3만 5천㎡에 하의테마파크가 조성돼 있다. 이에 전라남도는 '블루 투어' 선도 사업으로 아시아 평화의 성지인 하의도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의 숲 조성을 위해 신안군과 지난 9일부터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시범 사업에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김 전 대통령의 뜻을 기리고 보전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하의도 섬 곳곳을 스토리텔링 숲길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훼손된 난대 숲도 복원해 전남의 난대 숲 가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생가 주변 뒷산의 방치·훼손된 숲을 난대상록수림으로 복원해 경관숲을 조성하고, 생가 앞 광장에 서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후광 평화광장 정원'을 만들 계획이다. 후광 평화광장 정원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물을 한 곳에 모아 전시하

는 기념관을 추진한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린 시절 수학했던 덕봉서당에서 섬 반대쪽에 위치한 큰바위 얼굴까지는 스토리텔링 숲길인 '하의도모실길'을 조성해 소년 김대중을 기억하는 추억의 길을 만든다. '하의도에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귀인이 탄생한다'는 전설이 있는 큰 바위 얼굴 주변에는 서해 일몰을 감상하는 바다 전망 명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한반도 평화의 숲 구상에는 김농우 목포대 교수, 박석근 순천대 교수, 송태갑 광주전남연구원 박사, 이병진 디엑스엔컴퍼니 대표가 함께 해 하의도를 아시아의 평화 성지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영록 도지사는 현장을 둘러보며 "전남은 바다, 섬, 하늘, 숲, 바람 등 청정 블루자원의 보고로, 이 가운데 하의도는 김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평화의 성지"라며 "현장 구상에서 논의된 의견을 2020년 시범사업 계획에 반영해 하의도를 남해안의 기적을 일구는 '블루 투어'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전국 섬의 65%가 위치하고 있으나 섬 지역 대부분 숲이 훼손돼 있어 이를 생태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경관 숲을 조성, '블루 투어' 관광 기반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 '서남해안 섬숲 복원사업 10개년 계획'을 세워 4천여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광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광주시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자치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훈원센터와 함께 공공시설,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 154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어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승현 기자

한국전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AMI ESS MICRO GRID

SOLAR FARM SMART ENERGY CITY WIND POWER

K-SEM EV

한국전력의 에너지신기술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